

敦煌寫本「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A Textual Bibliographic Study on *Pumo-Unjungkyong*
of Dunhuang Manuscript

송 일 기(Song, Il-Gi)**

◁ 목 차 ▷

1. 緒論	3.3 丙種寫本
2. 敦煌寫本「父母恩重經」의 現況 및 系統	3.4 丁種寫本
2.1 寫本の 現況	4. 系統別 代表 寫本の 校釋
2.2 寫本の 系統	4.1 甲本 校釋
3. 系統別 代表 寫本の 選定	4.2 乙本 校釋
3.1 甲種寫本	4.3 丁本 校釋
3.2 乙種寫本	5. 結 論
	<참고문헌>

< 초 록 >

이 연구는 중국 서북지역의 돈황석실에서 발견된 사본 중 「부모은중경」만을 대상으로 그 전체적 현황을 조사하고 각 계통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교감한 것이다. 그 결과, 돈황사본 「은중경」의 내용은 갑종 → 을종 → 정종의 순차로 형성되었던 사실을 고찰하였다.

要語 : 돈황사본 부모은중경 은중경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condition of various versions of *Pumo-Unjungkyong*, the part of the manuscripts found in Dunhuang Mastaba located in the northwest of China. In this study, compared were the contents and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서지학전공, igsong@cau.ac.kr)

접수일: 2006년 11월 17일 최초심사일: 2006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8일

characteristics of these versions that are grouped into four types, that is, Gapjong, Uljong, Byongjong, and Jeongjong. The result shows that the contents of *Unjungkyong* in Dunhuang manuscript were formed in order of Gapjong, Uljong and Jeongjong, respectively.

Key words : Dunhuang Manuscript, *Pumo-Unjungkyong*, *Unjungkyong*

K C I

1. 緒 論

지난 20세기 벽두에 세계문화사상 매우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그것은 1900년 5월에 중국의 서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敦煌의 鳴砂山 莫高窟 제17굴 藏經洞 이른바 '敦煌石室'에서 대량의 사본 및 서화 유물이 도사 王圓籙에 의해 발견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중국은 청말의 혼란기여서,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해 체계적인 수습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한 동안 방치 상태로 머물렀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영국의 스타인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펠리오, 러시아의 올젠부르그, 일본의 오타니 등 세계열강이 그들의 대표적 탐험대를 이곳에 보내서 대량의 <敦煌遺書>를 수집하여 자국의 국가도서관 및 박물관에 수장한 바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敦煌文獻>이 세계 주요 국가에 수장된 내력이며, 중국 당국은 1910년에 가서야 비로소 이를 수습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근래에 이르러 각국은 이들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과 마이크로촬영 작업이 병행되었으며, 근래에 영국도서관을 중심으로 '국제돈황문헌정리프로젝트(IDP)'가 진행되어 아직 미흡하나마 온라인상에서 검색이 가능해졌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敦煌遺書>의 반환문제를 들어, 해당 국가로부터 입수한 필름을 가지고 지난 1990년 이래 <敦煌文獻>이란 이름으로 계속 출판해 오고 있다.¹⁾

그래서 이러한 정리 및 출판 작업을 바탕으로 그 동안 침체되었던 돈황문헌에 대한 학술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 또한 「敦煌寶藏」을 비롯하여 일련의 <돈황문헌> 시리즈가 출판됨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가 가능케 되었다.

한편 필자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佛說大報父母恩重經」 판본을 조사하여, 그 계통을 분류하고 판본학적 특징을 분석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은중경>이란 경전이 어떠한 성립과정으로 편찬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

1) 중국의 돈황 藏經洞에서 발견된 「敦煌文獻」의 정리 및 출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논문이 보이고 있으니,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독자의 참고를 바란다 劉進寶 “中國敦煌學研究的特點,” 「人文科學」第8輯(2002), 139-159).

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자료들의 검토가 필수적이어서, 관련 문헌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에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목판본과 비견할 만한 宋·元代の 板本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최근에 중국 송대에 북방의 변경에 존재했던 西夏에서 간행한 목판본을 찾을 수 있어서, 이를 우리의 고려본과 고찰한 논고를 발표하였다.²⁾

이처럼 중국에서는 송·원대 판본이 한 책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나, 그나마 근래에 와서 敦煌寫本을 비롯하여 房山石經本, 安岳磨崖石刻本, 大足石刻本 등이 차례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것은 이들 자료가 「은중경」 성립의 초기단계를 살필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세계 각국에 수장되어 있는 <敦煌遺書>에는 11세기 이전에 쓰여진 60여부 이상의 <은중경>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위의 여러 자료 가운데 돈황에서 발견된 사본만을 대상으로, 첫째 그 문헌의 계통을 밝히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각 계통별 서지 및 내용적으로 우수한 대표적 선본을 선정하고, 셋째 각 계통별 最善本을 대상으로 상호 교감하여 일차적 定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한국본 <은중경>의 성립 및 편찬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필수적 연구일 것으로 생각된다.

2. 敦煌寫本 「父母恩重經」의 現況 및 系統

2.1 寫本の 現況

중국의 서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敦煌의 鳴砂山 莫高窟의 제 17굴인 藏經洞

2) 宋日基, “韓國本 「父母恩重經」 形成에 관한 研究: 西夏本 및 高麗本の 板本學的 接近,”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에서 대량의 사본이 도사 왕원록에 의해 발견되었다. 여기에 수장된 문헌자료는 모두 11세기 초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대략 5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의 장경동 제17窟은 제16窟에 부속되어 출입구가 벽화로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11세기 전반에 封鎖한 이래로 9세기 동안 아무도 모르는 채로 최선의 상태로 보존되어 왔던 것이다.

그 후 최초의 발견자 왕원록은 주변의 주요 인사에게 이곳에 수장되어 있던 서화를 한 두 점씩 선사하거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이곳 장경동에서 대량의 문헌과 서화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점차 주변에 알려져 세계열강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당시 인도를 거점으로 둔황 인근의 호탄을 거쳐 누란을 중심으로 2차 탐험활동을 하고 있던 영국의 스타인(A. Stein)에게 전해지게 되자, 그는 발굴을 중지하고 제일 먼저 1907년에 둔황의 장경동에 당도하여 1만 5천여 점을 왕도사로부터 입수하였다. 그리고 인근의 신장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던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P. Pelliot)도 이 소식을 듣고, 이곳을 방문하여 역시 왕도사로부터 8천여 점에 이르는 중요한 사본을 입수해 갔던 것이다. 이후로도 일본과 러시아 탐험대가 이곳에 당도하여 장경동 유물을 수집해 갔다.

그 후 비로소 중국 당국에서도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오늘날 중국의 국가도서관에 수장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왕원록에 의해 발견된 장경동의 사본 및 서화 유물이 중국 외에 세계 주요국가에 분산 수장되었던 것이다.³⁾

장경동에서 발견된 사본은 대략 북송초기 이전에 쓰여진 불교사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문서와 당말·오대의 인쇄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헌자료가 발견된 敦煌石室 사본 중에 <父母恩重經> 또는 <佛說父母恩重經>으로 이름 된 사본이 현재까지 63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이 63부의 은중경은 전문이 완전한 것은 수중에 불과

3) 敦煌石室 藏經洞의 발견경위와 봉쇄 시기 및 이유에 대한 여러 학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劉進寶의 「敦煌學通論」(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02)이란 문헌이 참고가 된다. 최근 국내에서 이 책의 초판본인 「敦煌學述論」(臺北: 洪葉出版社, 1991)이 전인조 교수에 의해 번역되어 「둔황학무엇인가」라는 서명으로 발행하여 일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며, 대부분 卷首 또는 卷末이 일실된 상태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하나의 사본이 여러 권으로 나누어진 채, 여러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일부 보이고 있다.

현재 이 돈황사본 <부모은중경>은 영국의 대영박물관을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국가도서관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다음의 <표 1>은 현재까지 알려진 돈황사본 <부모은중경>의 주요 국가별 소장 상황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1> 國家別 敦煌寫本 <父母恩重經> 收藏 現況

所有國家	收藏處	數量	入手番號	善寫本
영국	大英圖書館	23部	S. 149, 865a, ① 1097, 1189, 1323, 1548a, 1907, 2084b, 2269, 3228, 4476, 4724, 5215v, 5253, 5408, 5433b, 5642b, 6007, 6062, ② 6074, 6087, 7203, 7635, 7779	S.2084b
프랑스	國立圖書館	5部	P. 2285, 3919a, 3919b, SP.208, EO5366	P.2285, 3919a
러시아	東方學研究所	12部	Дx 44, 304, 619, 927, 975, 1140, 1595, 1689, 1982, 1989, 3075, 3084	
중국	國家圖書館	13部	北 8202(號14), 8203(辰36), 8204(ノ22), 8205(關40), 8206(裳33), 8207(翔25), 8208(奈28), 8209(洪39), 8210(李85), 8211(羅81), 北新 1007, 1220, 1410	北 8202 (號14)
	北京大學圖書館	2部	D. 100, 101	
	上海博物館	2部	48(41379), 56(44961)	上博 48
	上海圖書館	1部	119(812569)	上圖 119
대북	中央圖書館	1部	31, 臺灣 8698	
일본		2部	中村不折(書道博物館), 七寺(名古屋)	
기타	李盛鐸鑑藏 敦煌寫本目錄	5部	散 319, 396, 483, ③ 548, 614	

① 鄭阿財가 제시한 s.1097은 해당 사경이 <金剛經>이므로, 조사자의 착오로 판단하여 이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② 新井慧譽가 추가로 발견한 사본. ③ 散548=臺灣8698

위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타인이 수집하여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본이 모두 23부로 조사되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

4) 鄭阿財, “<父母恩重經> 傳佈의 歷史考察,” 『新世紀敦煌學論文集』(巴蜀書社, 2003), 30-32.

로 중국의 국가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 18부가 수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에 12부, 프랑스에 2부, 일본 1부, 대북 1부, 기타 5부가 수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돈황사본의 상세한 서지적 특징은 논문 뒤의 <부록 1>과 같다.

2.2 寫本의 系統

돈황석실 장경동에서 5만점에 이르는 대량의 사본이 발견되어 여러 나라에 수장된 이래로 동서양의 문헌학자들에 의해 돈황사본에 대한 목록 작성을 비롯하여 교감 및 정본 편찬작업이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각 사본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 분야에서 그다지 활발한 상황은 아닌 듯 하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돈황사본 중에 <父母恩重經>사본은 63부나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일본에서는 대정연간의 「大正新修大藏經」 편찬에 스타인 수집본 중에 전문이 완전한 사본을 선정하여 이를 교감 수록한 바 있으며, 또한 일본의 서지학자인 禿氏祐祥은 1928년에 돈황사본 <은중경>과 高麗寫經 등을 조사하여 이를 2류 6종의 계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⁵⁾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훌륭한 <敦煌遺書>의 總目이나 索引 등의 工具書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전체적인 조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공구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느 한 계통의 은중경 사본 연구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총목 및 색인이 편찬된 이후 근래에 와서 馬世長

5) 禿氏祐祥은 처음으로 <父母恩重經>에 대해서 第1類로 丁蘭本, 古本, 增益本으로 분류하고, 第2類로 高麗本, 大報本, 省略本 등으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한 바 있는데, 제1류에 분류된 사본이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사본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父母恩重經の異本に就て』, 『宗教研究』 第5卷 第4號(1928), 116-123 참고). 이후 禿氏祐祥의 분류체계는 道端良秀, 新井慧譽와 鄭阿財의 돈황사본 <은중경> 분류에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 박도화는 고려본을 포함하여 이를 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박도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의 圖像 형성 과정,” 『美術史學報』 23輯(2004), 122-131 참고).

(2000), 新井慧譽(2002), 鄭阿財(2003) 등에 의해 일련의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상의 연구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아재의 논문에 나타난 돈황사본 <父母恩重經>의 계통분류를 참고하여 이를 표로 작성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鄭阿財의 敦煌寫本 <父母恩重經>의 系統 分類

구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수량
甲種 (丁蘭本)	S149, 2269, 6087, 7203		Дx1982, 1989	北8202, 8204, 上博48, 北大D100	10부
乙種 (古本)	S1097, 1189, 1323, 1548, 1907, 2084, 3228, 4476, 5215, 5253, 5408, 5433, 5642, 6062, 7635, 7779	P2285, 3919b	Дx 44, 304, 927, 975, 1140, 1595, 3075, 3084	北8203, 8205, 8206, 8207, 8208, 8209, 8210, 8211, 北大D101, 上博56	36부
丙種 (變文本)	S865, 4724, 6007				3부
丁種 (報本)		3919a		上圖119	2부

위와 같은 정아재의 분류에 의하면, 갑종은 정난 등의 효자고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본, 을종은 효자고사가 빠져있는 사본, 병종은 돈황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된 變(俗)文이 포함된 사본, 정종은 十恩 및 地獄 등의 내용이 增廣된 사본을 말한다.

그런데 위의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본 수량이 51부에 불과하여 63부와는 12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내용을 판별키 어려운 정도의 殘片을 제외한 사본만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결과 을종 계통의 사본이 36부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계통의 사본에 비해 가장 널리 유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종이나 정종은 부수가 매우 소량인 것으로 보아, 극히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異本으로 보인다.

한편, 근래 新井慧譽가 돈황사본 <恩重經>을 종합한 논문에 제시된 계통별

현황은 鄭阿財가 제시한 계통 및 부수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⁶⁾ 다음은 新井이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표 3>으로 작성하였다.

<표 3> 新井慧譽의 敦煌寫本 <父母恩重經>의 系統 및 部數 現況

구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기타	수량
丁蘭本 (甲種)	S.149, 2269, 6074 6087	EO.3566		北 8202, 8204, 上博 48-15, 北大 D100, 李盛鐸 152	臺灣 8698	11부
古本 (乙種)	S.865, 1189, 1323, 1548, 1907, 2084, 3228, 4476, 4724, 5215, 5253, 5408, 5433, 5642, 6007, 6062	P.2285, 3919b ¹	Дx 44, 304, 975, 1140, 1595, 1982	北 8203, 8205, 8206, 8207, 8208, 8209, 8210, 8211, 北大 D101, 上博 56, 李盛鐸 230, 426	中村不折	37부
大報原本 (丁種)		P.3919a		上圖 086 ² (삭제) 李盛鐸 326 ³		3부
未判明	S.7203, SP.208		Дx 44, 304, 927, 1689, 3075			7부
未確認	S.7635, 7779			散 319, 396, 483		5부

기타약호 - EO :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敦煌文物編號 SP: 英國圖書館 收藏 敦煌印本編號
 1. 3919a를 3919b로 교정 2. 上圖086 은 <佛說佛名經> 임으로 삭제 3. 李盛鐸26 = 上圖19,
 4. 臺灣8698= 散548

위의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新井慧譽는 모두 63부의 돈황사본 <부모은중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수장의 Дx 44, 304분이 古本과 未判明에 중복 수록되어 있고, 펠리오본 3919본에는 2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1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上圖086은 <佛說佛名經>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는 61부이다. 그리고 정아재의 계통 분류와 크게 상이한 점은 병종의 사본을 모두 을중 즉, 고본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그밖에도 李盛鐸本이 새로 추가

6) 新井慧譽, “敦煌本「父母恩重經」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第51卷 第2號(2002), 152-158.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사자에 견해에 따라 계통 및 부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돈황사본이 널리 민간에 유포되는 전사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착오로 인하여 내용상 심각한 오류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다음 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종합적인 연구를 발표한 정아재의 계통분류를 바탕으로,⁷⁾ 전문이 비교적 온전한 사본을 대상으로 교감을 실시하여 각 계통의 일차적인 정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차후 각 계통의 교감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최선의 정본 편찬이 나와야 할 것이다.

3. 系統別 代表 寫本의 選定

3.1 甲種 寫本

돈황사본 은중경 중에 갑종 계통의 사본의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經文 가운데 丁蘭과 郭巨 등의 孝子故事에 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⁸⁾ 이러한 효자고사는 중국의 한대에서부터 발생되어 당대에 이르러 24인의 효행사실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송·원대에 <二十四孝圖>로 편찬되어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다.⁹⁾ 그리하여 은중경의 성립 초기에는 당대에 민간에 유포되었던 효자고사의 일부 내용이 전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아재 또한 이를 ‘丁蘭本’으로 이름하고 있다.¹⁰⁾

7) 다만 <丙種(變文)>의 경우는 연구자에 따라 <乙種(古本)>에 편입시키는 경우가 보이고 있으며, 또한 해당사본의 상태가 불완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여 3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8) 甲種 <恩重經>에 수록된 丁蘭의 孝子故事는 일찍이 漢代(151년)에 제작된 『武梁祠西壁 畫像』의 제3층 우측에 ‘丁蘭刻木’이란 故事와 圖像이 보이고 있어, <丁蘭故事>는 이 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中國畫像石全集』 제1책(濟南山東 美術出版社, 2000), 29-31 참고].

9) 宋日基(外), “初編本 『三綱行實孝子圖』의 編纂過程 및 板畫樣式에 관한 研究,” 『書誌學 研究』 第2輯(2003. 6), 415-417.

10) 정아재 보다 앞서 근래 ‘丁蘭本’에 대한 상세한 서지학적 연구가 일본의 新井慧譽에 수행되

그래서 갑종 사본에 수록된 경문의 전문은 대략 980여자에 불과하나, 이와 흡사한 을종사본에 비해서는 대략 100여자 정도의 효자고사 내용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갑종 사본은 모두 10여부가 傳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과 중국에 각 4부, 러시아에 2부가 수장되어 있다. 이 중 전문이 완전한 사본은 중국의 국가도서관과 상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3.1.1 北京圖書館本(北圖8202 號字14號)

북경도서관은 현재 중국의 국가도서관으로 개칭되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정리 당시의 명칭으로 기재하였다. 갑종 사본으로 전문이 완전한 사본은 현재 중국 도서관에 '北圖 8202 號字14號'로 분류되어 수장되어 있다.

이 사본은 독립된 권자본 1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두의 일부에 부식과 漏濕의 현상이 보이고 있다. 권수 및 권말의 經題는 '佛說父母恩重經'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권말의 경제에는 물리적 개념의 분량을 의미하는 '一卷'이란 단위가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권말제 다음에 '淨土寺沙彌保勝誦過'라는 짙막한 낙서가 보이고 있는데, 아마 후대에 淨土寺 스님인 保勝이 소유했던 사본인 듯 하다. 전체 분량은 모두 62행으로 한 행의 자수는 17자를 기본으로 1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지질은 白麻紙로 보이며, 자체는 당사경의 기준적인 서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사본에 대해서 新井慧譽와 馬世長 교수가 전문을 판독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孫修身이 再校하여 발표한 바 있다.¹¹⁾ 그러나 여러 곳에 여전히 誤脫字가 보이고 있어 재차 교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본의 전문을 수록하고 상해박물관(上博48호)에 수장된 사본과 對校하고자 한다.

어 「〈父母恩重經〉의 丁蘭本について」(佛教學 第37號, 1995)와 「〈父母恩重經〉의 丁蘭本 校異」(二松學舍大學論集 第39集, 1996)란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11) 孫修身, 「佛說報父母恩重經」板本研究, 『段文傑敦煌研究十年紀念文集』(北京: 世界圖書, 1996), 240-241.

<丑 4> 北京圖書館本(北圖8202) <佛說父母恩重經> 全文

區分	經文
序分	<p>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耆闍崛山中 與大菩薩摩訶薩 及聲聞眷屬俱 亦與比丘比丘尼 ① 優婆塞優婆夷 一切諸天 人民及天龍鬼神等 皆來集會 一心聽佛說法 瞻仰尊顏 因不暫舍</p>
正宗分	<p>佛言 ② 人生在世 父母為親 非父不生 非母不育 是以寄託母胎 懷身十月 歲滿月充 母子俱顯 生墮草上 父母養育 臥則蘭車 父母懷抱 和和弄聲 含笑未語 飢時須食 非母不哺 渴時須飲 非母不乳 母中飢時 吞苦吐甘 ③ 乾就濕 非義不親 非母不養 慈母養兒 去離蘭車 十指甲中 食子不淨 應各有八斛四升 論母之恩 昊天罔極 嗚呼慈母 云何可報 阿難白佛言 世尊 父母云何 可報其恩 唯願說之 佛告阿難 汝好諦聽 善思念之 吾當為汝 分別解說 父母之恩 昊天罔極 云何可報 若有孝順 慈孝之子 能為父母 作福造經 或以七月十五日 能造佛名 名孟蘭盆 獻佛得果 能報父母之恩 若復有人 書寫此經 流布世人 受持讀誦 當知此人 報父母恩 父母云何可報 但父母至於行來 東西隣里 井竈確磨 不時還家 我兒家中 啼哭憶母 母即心驚 兩乳汁出 即知家中 我兒憶我 即得還家 兒遙見母來 或在蘭車 搖頭弄腦 或復曳腹隨行 嗚呼向母 母為橋子 曲身下就 長舒兩手 拂拭塵土 嗚和其口 開懷出乳 以乳與之 母見兒歡 兒見母喜 二情恩悲 親愛慈重 莫復過是 二歲三歲 弄意始行 於其食時 非母不知 父母行來 值他座席 或得餅肉 不暇悛味 懷挾來歸 歸向其子 十來九得 恒常歡喜 一過不得 憐啼伴哭 橋子不孝 ④ 又必五桶 孝子橋必有慈順 遂至長大 朋友交遊 踰頭摩髮 ⑤ 得好衣 ⑥ 覆蓋身體 弊衣破故 父母自着 新好綿帛 先與其子 至於行來 官私急疾 傾心南北 遂于東西 橫簪上頭 既索妻婦 得他子女 父母轉疏 私房屋室 ⑦ 共相語樂 父母年高 氣力衰老 終朝至暮 不來借問 或復父孤母寡 獨守空房 猶如客人 寄止他舍 常无恩愛 復无濡被 寒苦辛厄 ⑧ 難遭之甚 年老色衰 多饑蛇風 宿夜不臥 長吟歎息 何罪宿愆 生此不孝之子 或時喚呼 瞋目驚怒 婦兒罵詈 低頭含笑 妻復不孝 子復五桶 夫妻和合 同作五逆 彼時喚呼 急疾取使 十呼九違 盡不從順 罵詈瞋恚 不如早死 強在地上 父母聞之 悲哭懊惱 流淚雙下 啼哭目腫 汝初小時 非吾不長 但吾生汝 不如本无 昔 丁蘭木母 以靈感應孝順 董槩生義之報德 郭巨至孝 天賜黃金 迦夷國王 入山射獵 拋弓射鹿 悟傷閃匈 二父母 仰天悲啼 由是至孝 諸天下藥 塗創閃子還活 父母眼開 明觀日月 不慈不孝 天不感應 閃子更生 父母開目 人之孝順 百行為本 外書內經 明文成記</p>
流通分	<p>佛告阿難 若善男子善女人 能為父母 受持讀誦 書寫父母恩重大乘摩訶般若波羅密經 一句一偈 逕耳目者 所有五逆重罪 悉得消滅 永盡无餘 常得見佛聞法 速得解脫 尔時阿難 從座而起 偏袒右肩 長跪合掌 前白佛言 世尊此經 當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母恩經 若有一切衆生 能為父母 作福造經 燒香請佛 禮拜供養三寶 或飯食衆僧 當依是人 能報父母其恩 帝釋梵王 諸天人民 一切衆生 聞經歡喜 發菩薩心 啼哭動地 淚下如雨 五體投地 信受頂禮佛足 歡喜奉行</p>

3.1.2 上海博物館本(上博48)

갑종 사본으로 가장 온전한 자료가 상해박물관(48)에 소장되어 있다.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사본은 대부분 臺北의 상무인서관에서 발행한 『敦煌寶藏』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유출된 일부 사본은 여기에 누락되어 있다. 근래 새로 <敦煌文獻> 이란 이름으로 출판되면서 『돈황보장』에 누락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다.

그런데 돈황사본 중에는 상당량의 위조 사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직접 돈황사본을 수습했던 시점인 1910년 이전에 입수한 사본에는 거의 위조가 없으며, 그 이후에 수집한 사본 중에는 상당수의 偽造 또는 殘卷 사본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그러나 개인이 소장한 돈황사본은 장경동에서 발견된 직후 王圓籙에 의해 거 래된 것으로, 비교적 최선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상해박물관에 소장된 사본은 대부분 개인에 유출되었던 것을 후에 구입한 자료에 해당된다. 그래서 상해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소장된 돈황사본에는 비교적 초기에 입수한 사본으로 전문이 완전한 사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상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사본(上博48)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대 사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형태적 특징이 卷子 형식이 아닌 冊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화 현상은 인도 불경인 梵夾裝(經摺裝)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당말 이후로부터 송대 초기까지에 해당되고 있다.

이 上博48 사본은 「高聲念佛讚」으로부터 「佛說閻羅王阿孃注」 등 43종의 불경이 수록되어 있는데, <佛說父母恩重經>은 그 중 15번째에 수록되어 있다. 은중경만은 8엽으로 되어 있으며, 반엽을 기준으로 6행씩 배열되어 있고, 경문은 모두 45행에 이른다. 필사면은 먼저 세필로 烏絲欄을 긋고 그 안에 경문을 淨書하

12) 赤尾榮慶 著；宋日基 譯, “敦煌寫本の 書誌學的 研究,” 『文獻情報學報』 第8輯(2005. 12), 285-307.

였다. 그리고 한 행의 자수는 일반적으로 당대 사경이 17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본은 25자에서 27자 사이로 필사되어 있어 전형적인 사경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식적인 기관이나 전문 사경생의 작품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되어 유포된 사본으로 생각된다.

권수의 經題는 ‘佛說父母恩重經’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권말제는 경제 외에 ‘一卷’이란 물리적 단위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一卷’과 ‘卷一’의 개념은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一卷’은 해당 문헌의 전체적 분량을 가리키며, 이에 비해 ‘卷一’은 여러 卷數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본은 모두 여러 권이 아닌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말제 다음 행에 ‘佛說地藏菩薩經’이란 경명이 기재되어 있어, 다른 여러 불경이 합철되어 있는 사본임을 알 수 있다. 사본의 서체는 필사에 능숙한 전문 사경생의 필체로 볼 수 없으며, 일반인에 의해 여러 불경을 하나의 사본에 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문 중에는 필사 이후 교정한 듯 협주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난해한 글자는 판독이 어려운 듯 덧칠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본의 전문을 <표 5>에 전재하여 교감에 대비하고자 한다.

<표 5> 上海博物館本(上博48) <佛說父母恩重經> 全文

區分	經文
序分	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耆闍崛山中 與大菩薩摩訶薩 及聲聞眷屬俱 亦與比丘比丘尼 ① 優婆塞優夷 一切諸天人民及天龍鬼神等 皆來集會 一心聽佛說法 瞻仰尊顏 因不暫捨
正宗分	佛言 ② 人生生在世 父母爲親 非父不生 非母不育 是以寄託母胎 懷身十月 歲滿月充 母子俱顯 生墮草上 父母養育 臥則蘭車 父母懷抱 和和弄聲 含笑未語 飢時湏食 非母不哺 渴時湏飲 非母不乳 母中飢時 吞苦吐甘 ③ 推乾就濕 非義不親 非母不養 慈母養兒 去離蘭車 十指甲中 食子不淨 應各有八斛四升 論母之恩 昊天罔極 嗚呼慈母 云何可報 阿難白佛言世尊 父母云何 可報其恩 唯願說之 佛告阿難 汝好諦聽 善思念之 吾當爲汝 分別解說 父母之恩 昊天罔極 云何可報 若有孝順 慈孝之子 能爲父母 作福造經 或以七月十五日 能造佛槃 名孟蘭盆 獻佛得果 能報父母之恩 若復有人 書寫此經 流布世人 受持讀誦 當知此人 報父母恩 父母云何可報 但父母至於行來 東西隣里 并竈碓磨 不時

<p>正宗分</p>	<p>還家 我兒家中 啼哭憶母 母卽心驚 兩乳汁出 卽知家中 我兒憶我 卽得還家 兒遙見母來 或在蘭車 搖頭弄腦 或復曳腹隨行 嗚呼向母 母爲橋子 曲身下就 長舒兩手 拂拭塵土 嗚和其口 開懷出乳 以乳與之 母見兒歡 兒見母喜 二情恩悲 親愛慈重莫復過是 二歲三歲 弄意始行 於其食時 非母不知 父母行來 值他座席 或得餅肉 不瞰憚味 懷挾來歸 歸向其子 十來九得 恒常歡喜 一過不得 橋啼佯哭 橋子不孝 ④ 又必有慈順 遂至長大 朋友交遊 踟頭摩髮 ⑤ 欲得好衣 ⑥ 覆蓋身 弊衣破故 父母自着 新好綿帛 先與其子 至於行來 官私急疾 傾心南北 遂子東西 橫簪上頭 既索妻婦 得他子女 父母轉疏 私房屋室 ⑦ 共相諸樂 父母年高 氣力衰老 終朝至暮 不來借問 或復父孤 母寡 獨守空房 猶如客人 寄止他舍 常无恩愛 復无濡被 寒苦辛厄 ⑧ 難遭之其 年老色衰 多饑蛇風 宿夜不臥 長吟歎息 何罪宿愆 生此不孝之子 或時喚呼 瞋目驚怒 婦兒罵詈 低頭含笑 妻復不孝 復五橋夫妻和合 同作五逆 彼時喚呼 急疾取使 十呼九違 盡不從順 罵詈瞋恚 不如早死 強在地上 父母聞之 悲哭懊惱 流淚雙下 啼哭目腫 汝初小時 非吾不長 但吾生汝 不如本无 昔 丁蘭木母 以靈感應 孝順董璽 生義之報德 郭巨至孝 天賜黃金 迦夷國王 入山射獵 拋弓射鹿 悟傷閃匈 二父母仰天悲啼 由是至孝 諸天下藥 塗創閃子還活 父母眼開 明視日月 不慈不孝 天不感應 閃子更生 父母開目 人之孝順 百行爲本 外書內經 明文成記</p>
<p>流通分</p>	<p>佛告阿難 若善男子善女人 能爲父母 受持讀誦 書寫父母恩重大乘摩訶般若波羅密經 一句一偈 逕耳目者 所有五逆重罪 悉得消滅 永盡無餘 常得見佛聞法 速得解脫 阿難 從座而起 偏袒右肩 長跪合掌 前白佛言 世尊此經 當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母恩恩經 若有一切衆生 能爲父母 作福造經 燒香請佛 禮拜 供養三寶 或飯食衆僧 當依是人 能報父母其恩 帝釋梵王 諸天人民 一切衆生 聞經歡喜 發菩薩心 啼哭動地 淚下如雨 五體投地 信受頂禮佛足 歡喜奉行</p>

3.2 乙種 寫本

을중 사본은 갑중 사본에 들어 있는 효자고사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흔히 ‘刪削本’으로 이름하기도 하는데, 정아재는 이를 ‘古本’으로 표현하고 있다. ‘古本’이란 의미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히려 ‘刪削本’이란 용어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을중이 갑중에 비해 먼저 출현한 사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냐가 의문이다.

현재 을중 사본 중에는 당나라 후기에 해당되는 847년(P2285), 875년(S4476),

882년(上博56)에 寫成된 절대연대를 갖고 있는 사본이 3종이 존재하고 있다. 단지 3종의 사본으로 을중 계통 사본의 유포연대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당대 후기에 유행했던 사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정아재의 조사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사본은 36부로 영국에 16부, 프랑스에 2부, 러시아에 8부, 그리고 중국에 10부가 수장되어 있다. 이처럼 을중 사본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 후기로부터 송대 초기에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사본으로 생각된다. 을중 사본 중에 비교적 전문이 완전한 사본은 스타인본 2084와 펠리오본 2285을 대상으로 상호 교감하고자 한다.

3.2.1 스타인蒐集本(S. 2084 : 大正藏 2887)

이 사본은 영국의 서역탐험대를 지휘했던 스타인이 1907년에 돈황의 장경동을 방문하여 최초 발견자 王圓籙으로부터 직접 입수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대영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본은 일찍 주목되어 일본에서 대정연간에 대장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어 「대정신수대장경」(권85, 2887호)에 수록되어 있다. 신수대장경 편찬 당시에 이미 스타인본(S.1907)과 中村不折本 등과 교감을 거쳐 수록했던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이 2종의 사본 역시 을중 계통의 사본임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 사본은 일찍 <大正藏>에 수록되었던 까닭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권수부분에는 은중경과 관련이 없는 불경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불경을 한 권에 합쳐서 만들었던 사본으로 보인다. 권수 및 권말의 경제는 ‘佛說父母恩重經’으로 되어 있으며, 권수제에 이어 바로 경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전체 분량은 58행으로 한 행의 자수는 17자를 기본으로 1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다. 지질은 두터운 麻紙로 보이며, 자체는 전형적인 당사경체인 점으로 보아 아마 개인이 아닌 사찰이나 관청에 소속된 전문 사경생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경문 중에 4행은 3행은 낮추어 기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

여 기재한 이유는 특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전문이 완전하여 아래의 <표 6>에 경문의 내용을 전제하고, 다른 펠리오본(P.2285)과 상호 교감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6> 스타인본(S.2084) <佛說父母恩重經> 全文

區分	經文
序分	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耆闍崛山中 與大菩薩摩訶薩 及聲聞眷屬俱 亦與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一切諸天人及天龍鬼神 皆來集會 一心聽佛說法 瞻仰尊顏 ① 因不暫捨
正宗分	佛言 人生在世 父母爲親 非父不生 非母不育 是以寄託母胎 懷娠十月 歲滿月充 母子俱顯 生墮草上 父母養育 臥則蘭車 父母懷抱 ② 和和弄聲 含笑末語 飢時湏食 非母不哺 渴時湏飲 非母不乳 母中飢時 吞苦吐甘 推乾就濕 非義不親 非母不養 慈母養兒 去離蘭車 十指甲中食子不淨 應各有八斛四斗 計論母恩 昊天罔極 嗚呼 ③ 慈母云何可報 阿難白佛言 世尊云何 可報其恩 唯願說之 佛告阿難 汝諦聽 善思念之 吾當爲汝 分別解說 父母之恩 ④ 昊天罔極 云何若有孝順 慈孝之子 能爲父母 作福造經 或以七月十五日 能造佛槃盂蘭盆 獻佛及僧 得果无量 能報父母之恩 若復有人 書寫此經 流布世人 受持讀誦 當知此人 報父母恩 父母云何可報 但父母至於行來 東西隣里 井竈確磨 不時還家 我兒家中 啼哭憶我 卽來還家 其兒遙見我來 或在蘭車 搖頭弄腦 或復曳腹隨行 嗚呼向母 母爲其子 曲身下就 長舒兩手 拂拭塵土 嗚和其口 開懷出乳 以乳與之 母見兒歡 兒見母喜 二情恩悲 親愛慈重 ⑤ 莫復 二歲三歲 弄意始行 於其食時 非母不知 父母行來 值他座席 或得餅肉 不瞰輟味 懷挾將歸 ⑥ 向其與子 十來九得 恒常歡喜 一過不得 嬌啼 佯哭 嬌子不孝 ⑦ 必有五穢 孝子不懷 必有慈願 遂至長大 朋友相隨 梳頭摩髮 欲得好衣 覆蓋身體 弊衣破故 父母自着 ⑧ 親好綿帛 先與其子 至於行來 官私急疾 傾心南北 遂子東西 橫上其頭 既索妻婦 得他子女 父母轉疏 私房屋室 共相語樂 父母年高 氣力衰老 終朝至暮 不來借問 惑復父孤 母寡 獨守空房 猶如客人 寄止他舍 常无恩愛 復无濡被 寒苦辛厄 難遭之甚 年老色衰 多饒熾風 夙夜不臥 ⑨ 長呼歎息 何罪宿愆 此不孝之子 或時喚呼 瞋目驚怒 婦兒罵詈 低頭含笑 妻復不孝 子復五穢 夫妻和合 同作五逆 彼時喚呼 急疾取使 十喚九違 盡不從順 罵詈瞋恚 不如早死 强在地上 父母聞之 悲哭懊惱 流淚雙下 啼哭目腫 汝初小時 ⑩ 非五不長 但五生汝 不如本无
流通分	佛告阿難 若善男子善女人 能爲父母 受持讀誦 書寫父母恩重大乘摩訶般若波羅密經 一句一偈 一逕耳目者 所有五逆重罪 悉得消滅 永盡无餘 常得見佛聞法 速得解脫 阿難 從座而起 偏袒右肩 長跪合掌 前白佛言 世尊此經 云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母恩重經 若有一切衆生 能爲父母 作福造經 燒香請佛 禮拜供養三寶 或飲食衆僧 當知是人 能報父母其恩 帝釋梵王 諸天人人民 一切衆生 聞經歡喜 發菩薩心 啼哭動地 淚下如雨 五體投地 信受頂禮佛足 歡喜奉行

3.2.2 펠리오蒐集本(P. 2285)

돈황에서 발견된 사본 중에 필사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사본은 그리 많지 않다. 대략 60부에 이르는 돈황사본 <운중경> 중에 사경기가 있는 사본은 스타인본 2종(1907, 4476)과 펠리오본 2종(2285, 3919b) 등 4 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 사본은 절대연대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문의 내용도 비록 약간의 漏濕이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 사본은 전후의 경제를 포함하여 모두 59행의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며, 한 행의 자수는 17자를 기본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필사면은 먹물로 사란을 긋고 각 행마다 그 사이에 경문을 차례로 쓰고 있다. 지질은 가는 발문이 드러나 보이는 하얀 白麻紙로 보이며, 자체는 당사경에서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사경체로 쓰여져 있어 전문 사경승에 의해서 쓰여진 예사롭지 않은 사경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특징으로 보아 이 사본은 당나라가 번성했던 시절에 쓰여진 사경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사본의 권말에는 ‘丁卯年十月二十九日 奉爲亡妣寫畢 孤子比丘 智照’라는 사경연대가 기재되어 있어, 한층 이 사본의 가치를 돋보이고 있다. 이 사경기로 보아, 필사 이 사본은 비구 智照라는 사람이 죽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축원할 의도에서 본인 직접 寫經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寫經記에는 단순히 ‘丁卯’라는 干支로 기재되어 있어 연대 환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발원자로 보이는 ‘比丘智照’라는 기록이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비구 智照가 생존했던 시기를 추적해 보면, 당나라 大中원년의 丁卯年인 847년에 해당된다.¹³⁾ 이밖에도 智照는 沙州의 龍興寺의 스님으로 中唐 이후에 <金光明經>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경을 제작하는데 직접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¹⁴⁾

이처럼 이 사본은 사경기가 있어 절대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전문이 비교적

13) 馬世長, “<父母恩重經> 寫本與變相,” 『1987年敦煌石窟國際研討會論文: 石窟考古篇』 (遼寧美術出版社, 1990) 參照.

14) 『敦煌學大辭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8), 「智照」條, 349.

온전하기 때문에 경문의 내용을 아래의 <표 7>에 전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스타인본과 상호 교감을 실시하여 이용에 참고토록 하고자 한다.

<표 7> 펠리오본(P.2285) <佛說父母恩重經> 全文

區分	經文
序分	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耆闍崛山中 與大菩薩摩訶薩 及聲聞眷屬俱 亦與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一切諸天人民及天龍鬼神 皆來集會 一心聽佛說法 瞻仰尊顏 ① 目不暫捨
正宗分	佛言 人生在世 父母爲親 非父不生 非母不育 是以寄託母胎 懷娠十月 歲滿月充 母子俱隨 生墮草上 父母養育 臥則攔車 父母懷抱 ② 和和栴聲 含笑末語 飢時湏食 非母不哺 渴時湏飲 非母不乳 母中飢時 吞苦吐甘 推乾就濕 非義不親 非母不養 慈母養兒 去離蘭車 十指甲中 食子不淨 應各有八斛四斗 計論母恩 昊天罔極 嗚呼 ③ 慈母云何可報其恩 阿難白佛言 世尊云何可報其恩 唯願說之 佛告阿難 汝諦聽 善思念之 吾當爲汝 分別解說 父母之恩 ④ 昊天罔極 云何可報 若有孝順 慈孝之子 能爲父母 作福造經 或以七月十五日 能造佛槃盂蘭盆 獻佛及僧 得果无量 能報父母之恩 若復有人 書寫此經 流布世人 受持讀誦 當知此人 報父母恩 父母云何可報 但父母至於行來 東西隣里 井竈確磨 不時還家 我兒家中 啼哭 憶我 卽來還家 其兒遙見我來 或在蘭車 搖頭栴腦 或復曳腹隨行 嗚呼向母 母爲其子 曲身下就 長舒兩手 拂拭塵土 嗚和其口 開懷出乳 以乳與之 母見兒歡 兒見母喜 二情恩悲 親愛慈重 ⑤ 莫復過 二歲三歲 栴意始行 於其食時 非母不知 父母行來 值他座席 或得餅肉 不躡輟味 懷挾來歸 ⑥ 向與子 十來九得 恒常歡喜 一過不得 憐啼伴哭 憐子不孝 ⑦ 又必五箇 孝子不憐 必有慈順 遂至長大 朋友相隨 梳頭摩髮 欲得好衣 覆蓋身體 弊衣破故 父母自着 ⑧ 新好綿帛 先與其子 至於行來 官私急疾 傾心南北 遂子東西 橫上其頭 既索妻婦 得他子女 父母轉疏 私房屋室 共相語樂 父母年高 氣力衰老 終朝至暮 不來借問 或復父孤母寡 獨守空房 猶如客人 寄止他舍 常无恩愛 復无濡被寒 苦辛厄難遭之 甚年老色衰 多饑饉風 夙夜不臥 ⑨ 長吁歎息 何罪宿愆 此不孝之 子或時喚呼 瞋目驚怒 婦兒罵詈 低頭含笑 妻復不孝 子復五箇 夫妻和合 同作五逆 彼時喚呼 急疾取使 十喚九違 盡不從順 罵詈瞋恚 不如早死 强在地上 父母聞之 悲哭懊惱 流淚雙下 啼哭目腫 汝初小時 ⑩ 非吾不長 但吾生汝 不知本无
流通分	佛告阿難 若善男子善女人 能爲父母 受持讀誦 書寫父母恩重大乘摩訶般若波羅密經一句一偈 一逕耳目者 所有五逆重罪 悉得消滅 永盡无餘 常得見佛聞法 速得解脫 阿難 從座而起 偏袒右肩 長跪合掌 前白佛言 世尊此經 云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母恩重經 若有一切衆生 能爲父母 作福造經 燒香請佛 禮拜供養三寶 或飲食衆僧 當知是人 能報父母其恩 帝釋梵王諸天人民 一切衆生 聞經歡喜 發菩薩心 嚙哭動地 淚下如雨 五體投地 信受頂禮佛足 歡喜奉行

3.3 丁種 寫本

정종 계통의 사본은 앞의 다른 계통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문의 내용이 상당히 增廣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증광된 내용은 현재 유통본에서 보이는 <父母十恩> 과 <地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증광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병종 계통의 강경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미 돈황사본 중에는 일부 <十恩德>이란 별도의 사본들이 보이고 있어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영향 관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¹⁵⁾

그런데 <십은>과 <지옥>에 관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판본으로 형성되면서 주로 변상판화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행본에는 모두 21곳에 도상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증광된 내용이 후대에 민간에 유포되면서, 주로 도상형식으로 반영되어 일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후 現行本の 성립에 있어서 교량적인 과정에 있는 사본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 계통의 사본은 펠리오본 1부(3919)와 상해도서관본 1부(119) 등 2부에 불과하여 그다지 많이 유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2종의 사본에는 959(顯德6)년, 즉 10세기 중반 무렵에 쓰여졌다는 연대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통의 사본이 등장한 이후 빠른 시기에 현행본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3.1 펠리오蒐集本(P. 3919a)

丁種 계통의 사본은 앞서 조사된 돈황사본 <恩重經> 63부 중에 단 2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펠리오 수집본 가운데 1부(3919a)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본은 단순히 <은중경>만이 독립된 사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大般涅槃經佛母品>, <佛說菩薩修行四法經>, <六門陀羅尼經>, <般

15) 澤田瑞德, “十恩德과 十報恩,” 『佛敎と中國文學』(東京: 國書刊行會, 1975), 68-69.

若波羅蜜多心經> 등 여러 불경과 함께 合集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불경으로 合집된 펠리오본(3919)에는 첫 번째 <열반경>에 이어 두 번째에 2종의 <은중경>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의 표에서 3919a와 3919b로 표시하였다. A본은 정중계통의 사본으로 전문이 완전하며, B본은 율중계통의 사본으로 권말의 일부가 일실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본은 서로 다른 계통의 사본이 한 권에 존재하고 있어, 동시대에 여러 계통의 사본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이 A본의 형태적 특징을 보면, 卷子가 아니라 葉子의 초기형태로 되어 있어 당말에서 송초에 이르는 서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은중경>의 권수의 시작부분을 살펴보면, 앞의 <열반경>의 권미체에 이어 행을 달리하여 ‘佛說父母恩重經’이란 권두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행을 구분하지 않고 바로 경문이 시작되고 있다.

경문의 사경 형식은 1엽에 5행으로 구분하고, 한 행에 36자를 기준으로 필사하였는데, 간혹 한두 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 행에 많은 글자를 쓰다 보니 글자는 작고 조밀한 느낌을 주고 있다. 아마도 종이를 절약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나, 여러 불경을 한 책에 모두 수록하여 휴대에 편리를 고려한 측면도 없지 않다.

종이는 돈황사본에 흔히 사용된 백마지로 보이며, 자체는 능숙한 寫經僧의 필체로 세소자로 쓰여져 있다. 그런데 이 사경승에 대해서는 <佛說菩薩修行四法經>의 후미의 권미제 아래에 ‘沙彌戒輪書’와 ‘三界寺觀音院僧戒輪書記’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이 사본은 삼계사의 관음원 스님인 계륜에 의해서 쓰여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 대상본인 다음의 상해도서관본(119) 후미에는 ‘顯德6(959)年正月19日 三界寺沙彌戒輪書記’란 寫經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959년 무렵에 쓰여진 사본으로 추정되며, 계륜 또한 이 당시에 삼계사에서 활동했던 스님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삼계사의 계륜에 의해서 쓰여진 <은중경(3919a)> 사본의 전문을 아래의 <표 8>에 전제하고 상해도서관본과의 비교 교감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8> 펠리오본(P. 3919a) <佛說父母恩重經> 全文

區分	經文
序分	<p>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 伊沙山中 與諸比丘 二萬八千人俱 及諸菩薩 無量無邊 八部四衆 圍繞世尊 時有聖者 名曰阿難 問於如來 父母恩德 彼諸菩薩 咸共讚言 善哉阿難</p>
正宗分	<p> 尔時如來 告阿難曰 諦聽諦聽 父母恩德 有其十種 何等爲十 一者懷擔守護恩 二者臨產受苦恩 三者生子忘憂恩 四者咽苦吐甘恩 五者推干就濕恩 六者洗濯不淨恩 七者乳哺養育恩 八者遠行憶念恩 九者爲造惡業恩 十者究竟捨愍恩 佛告阿難 我觀衆生 雖居人品 心行愚蒙 不思爺孃 有大恩德 不生恭敬 弃恩背恩 無有人慈 不孝不義 阿孃懷子 十月之中 起坐不安 如擊重擔 食飲不下 如長病人 月滿生時 受苦諸痛 須臾好惡 恐畏無常 如殺猪羊 血流遍地 受如是苦 生得此身 嘔苦吐甘 抱持養育 洗濯不淨 無憚劬勞 忍熱忍寒 不辭辛苦 乾處兒臥 濕處母眠 ①三年諸中 飲母白乳 嬰孩童子 乃至盛年 獎教禮儀 婚嫁官學 拔求資業 携荷艱辛 勤苦至終 不言恩德 男女有病 父母病生 子若病除 ②父慈母方差 如斯養育 願早成人 及至長成 翻爲不孝 尊親共語 應對堪憐 恠眼路時 欺凌伯叔 打罵兄弟 毀辱親情 無有禮儀 不遵師範 父母教命 元不依行 兄弟共言 故相叩捩 出入來往 不啓尊人 言行高踈 檀意爲事 父母訓罰 伯叔論非 童幼矜憐 尊人遮護 漸漸成長 佞淚不調 不伏虧違 反生嗔恨 弃諸勝友 朋附惡人 習以成性 遂爲任計 被人誘進 逃竄他邦 荏苒因修 便爲婚嫁 由斯留礙 久不還家 或在他鄉 不能謹慎 被人謀點 橫事鉤牽 ③狂被刑科 牢獄枷鎖 或遭病患 厄難纏纏 困苦飢羸 無人看待 被他嫌嫉 委棄街衢 因此命終 無人救療 膨脹爛壞 日爆風吹 白骨飄零 棄他鄉土 便與親族 ④勸受長乖 父母心隨 永懷憂念 或因啼泣 兩眼俱盲 或爲悲哀 氣結成病 或緣憶子 衰變死亡 作鬼抱魂 不曾割捨 或復兒子 不崇學藝 用逐異端 無賴麤頑 好習無益 鬪打竊盜 觸犯鄉閭 飲酒擣蒲 姦非過失 帶累兄弟 惱亂耶孃 晨去暮還 尊親憂念 不知父母 ⑤動心寒溫 晦朔朝脯 永乖狀侍 安慶薦枕 判不知問 參問起居 從茲斷絕 父母年邁 ⑥形息衰羸 羞見他人 嗔呵欺打 或復父孤 母寡 獨守空堂 由若客人 寄居 他舍 應色饌物 供養尊親 每詐羞慙 畏人怪笑 若持財食 供給妻兒 醜拙疲勞 無避羞恥 妻妾約束 每事依從 尊者嗔呵 全無畏懼 或復作女 適配他人 未婚之時 或皆孝順 婚姻以訖 不孝還憎 父母微嗔 卽生惡恨 夫婿打罵 忍受甘心 翼性宗情 ⑦深眷屬重 自家骨肉 却以爲疏 ⑧或隨夫婿 外郡他州 離別耶孃 無心戀慕 斷絕消息 音信不通 令使耶娘 懸心憶念 父母恩德 無量無邊 不孝之愆 卒陳難盡 尔時大衆 聞佛所說 父母恩重 舉身投地 渾槌自撲 身諸毛孔 悉皆流血 悶絕躓地 良久乃蘇 高聲唱言 苦哉痛哉 我等今者 深是罪人 曾來未覺 ⑨冥若夜遊 今吾知非 心膽俱碎 唯願世尊 哀愍救拔 云何報得 父母深恩 尔時如來 卽以八種 深重梵聲 告大衆言 汝等當知 假使有人 左肩擔父 右肩擔母 皮穿至骨 骨穴徹髓 遠須弥山 經百千劫 ⑩流血沒膝 由不能報 父母深恩 </p>

<p>正宗分</p>	<p>假使有人 曹飢饉劫 爲於父母 盡以其身 齧割碎壞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 假使有人 爲於耶孃 手執利刀 剗其眼睛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 假使有人 爲於爺孃 亦以利刀 剗其心肝 不辭痛苦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 假使有人 爲於耶孃 打骨出髓 百千牟載 一時刺身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 假使有人 爲於耶孃 吞熱鐵丸 遍身焦爛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 尔時大衆 聞世尊語 痛割於心 諦思無計 ①同發聲言 深心慙愧 深心慙愧 我等 今者 ②云何報得 父母深恩 爲於耶孃 懺悔罪愆 爲於父母 讀誦此經 爲於父母 施修福 若能如此 名曰孝子 不作此行 是地獄人 佛告阿難 不孝之身 ③命終墮於阿鼻地獄 其獄縱廣 八萬由旬 鐵爲羅網 其 地赤鐵 熾火烟焰 猛烈炎爐 雷奔電爍 燒銅鐵汁 流注罪人 銅苟鐵蛇 恒吐烟 焰 燒繞者炙 脂膏焦燃 苦哉 痛哉 哀哉 難堪難忍 鉤戟槍梢 ④劍刀風輪 如雨如雲 空中亂下 或斫或刺 苦罰罪人 歷劫受殃 無時間歇 又令更入 餘地 獄中 遍歷受苦 其數十八 一者飲銅地獄 二者黑繩地獄 三者炎石地獄 四者 沸尿地獄 五者火車地獄 六者鐵床地獄 七者銅柱地獄 八者鐵鋸地獄 九者 鐵網地獄 十者鐵窟地獄 十一者鐵丸地獄 十二者劍輪地獄 十三者拔舌地獄 十四者灰河地獄 十五者鍊湯地獄 十六者熱鐵地獄 十七者黑闇地獄 十八者 寒冰地獄 通諸地獄 受大苦痛 腹肚骨肉 撩亂縱橫 一日之中 千生万死 皆由五逆 不孝之愆</p>
<p>流通分</p>	<p>⑤ 尔時阿難 及諸大衆 天龍鬼神 夜叉羅刹 人非人等 聞佛所說 身毛皆豎 ⑥ 悲泣哽噎 不能自裁 皆發願言 我等從今 盡未來際 寧碎此身 由如微塵 誓不違於如來聖教 寧以千百劫 拔出其舌 長百千由旬 鐵犁耕之 流血成河 終不違於如來聖教 寧以剝確 斬斫其身 百千万段 皮肉筋骨 悉皆零落 終 不違於如來聖教 阿難 從座安詳而起 白世尊言 此經當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 母恩重 汝當奉持 尔時大衆 聞佛所說 皆大歡喜 信受奉行</p>

3.3.2 上海圖書館(上圖119:959年寫)

丁種 계통의 사본 중 하나인 상해도서관본(上圖 119)은 사본의 여러 특징이 가장 완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최선본으로 선정될만 한 여러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펠리오본과는 사본의 형태나 형식이 전혀 다르나, 사경자는 삼계사 스님 戒輪으로 밝혀져 있어 동일인에 의해 寫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 사본은 여러 특징에서 가장 최선본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아마도 1900년에 왕원록에 의해 17굴 장경동이 발견된 직후에 유출시킨 사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본의 형태는 전형적인 권자로 되어 있으며, 권수의 서명은 ‘佛說父母恩重經’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돈황사본 <은중경>은 경전의 내용과 계통의 구분 없이, 사본에 기재된 권두의 서명은 모두 동일하게 ‘佛說父母恩重經’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경문은 한 행에 17자로 쓰여져 있으나, 간혹 한 두 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다. 지질은 전형적인 白麻紙로 알려져 있으며, 자체 또한 능숙한 사경자에 의해서 쓰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권말의 경제 다음에 ‘顯德6(959)年正月19日 三界寺沙彌戒輪書記’라는 사경기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본은 959년에 戒輪에 의해 사경된 사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말의 사경기에 의해 사경의 절대연대 및 사경자가 확인되고 있어, 이 사본의 자료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본이 비록 동일 사경자에 의해 쓰여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문의 내용에서 서로 다른 글자(異字)나 내용(異文)이 보이고 있어 교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여기에 경문의 전문은 아래의 <표 9>에 전제하고, 다음장에서 펠리오본과 상호 교감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9> 上海圖書館本(上圖119) <佛說父母恩重經> 全文

區分	經文
序分	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伊沙崛山中 與諸比丘 二萬八千人俱 及諸菩薩 無量無邊 八部四衆 圍繞世尊 時有聖者 名曰阿難 問於如來 父母恩德 彼諸菩薩 咸共讚言 善哉 阿難
正宗分	<p> 尔時如來 告阿難曰 諦聽諦聽 父母恩德 有其十種 何等爲十 一者懷胎守護恩 二者臨產受苦恩 三者生子忘憂恩 四者咽苦吐甘恩 五者推干就濕恩 六者洗濯不淨恩 七者乳哺養育恩 八者遠行憶念恩 九者爲造惡業恩 十者究竟憐愍恩 佛告阿難 我觀衆生 雖居人品 心行愚蒙 不思耶孃 有大恩德 不生恭敬 弃恩背恩 無有人慈 不孝不義 阿孃懷子 十月之中 起坐不安 如擊重擔 食飲不下 如長病人 月滿生時 受苦苦痛 須臾好惡 恐畏無常 如熬猪羊 血流遍地 受如是苦 生得此身 咽苦吐甘 抱持養育 洗濯不淨 無憚劬勞 忍熱忍寒 不辭辛苦 乾處兒臥 濕處母眠 ① 三年之中 飲母白乳 嬰孩童子 乃至盛年 獎教禮儀 婚嫁官學 被求資業 携荷艱辛 勤苦至終 不言恩德 男女有病 父母病生 子若病除 ② 慈母方老 如斯養育 願早成人 及至長成 翻爲不孝 尊親共語 應對瑣擇 拗眠路晴 欺陵伯叔 打罵兄弟 毀辱親情 無有禮儀 不遵師範 父母教命 元不依行 兄弟共言 故相叩振 出入來往 不啓尊人 言行高踈 擅意爲事 父母訓罰 伯叔論非 童幼矜憐 尊人遮護 漸漸成長 悞悞不調 </p>

正宗分	<p>不伏虧違 反生瞋恨 弃諸勝友 朋附惡人 習以性成 遂爲任計 被人誘進 逃竄他邦 在昔因脩 便爲婚嫁 由斯留礙 久不還家 或在他鄉 不能謹慎 被人謀點 橫事鉤牽 ③ 枉被刑科 牢獄枷鎖 或遭病患 厄難纏纏 因苦飢羸 無人看待 被他嫌殘 委棄街衢 因此命終 無人救療 膨脹爛壞 日爆風吹 白骨飄零 糞他鄉土 便與親族</p> <p>④ 歡愛長乖 父母心隨 永懷憂念 或因啼泣 兩眼俱盲 或爲悲哀 氣結成病 或緣憶子 衰變死亡 作鬼抱魂 不曾割捨 或復兒子 不崇學藝 用途異端 無賴驕頑 好習無益 鬪打竊盜 觸犯鄉閭 飲酒擣蒲 奸非過失 帶累兄弟 惱亂耶孃 晨去暮還 尊親憂念 不知父母 ⑤ 動止寒溫 晦朔朝晡 永乖狀侍 安床薦枕 判不知聞 參問起居 從茲斷絕 父母年邁</p> <p>⑥ 刑兒衰羸 羞見他人 瞋呵欺打 或復父孤 母寡 獨守空堂 由若客人 寄居他舍 應索饌物 供養尊親 每許羞慙 畏人怪笑 若持財食 供給妻兒 醜拙疲勞 無避羞耻 妻妾約束 每事依從 尊者嗔呵 全無畏懼 或復作女 適配他人 未婚之時 或皆孝順 婚姻以訖 不孝還憎 父母微嗔 卽生怨恨 夫婿打罵 忍受甘心 異性宗情 ⑦ 深眷重自家骨肉 却以爲疎 ⑧ 或隨婿夫 外郡他州 離別耶孃 無心戀慕 斷絕消息 音信不通 令使耶孃 懸心憶念 父母恩德 無量無邊 不孝之僭 卒陳難盡</p> <p>尔時大眾 聞佛所說 父母恩重 舉身投地 渾拋自撲 身諸毛孔 悉皆流血 悶絕躄地 良久乃蘇 高聲唱言 苦哉痛哉 我等今者 深是罪人 曾來未覺 ⑨ 寘若夜遊 今悟知非 心膽俱碎 唯願世尊 哀愍救拔 云何報得 父母深恩</p> <p>尔時如來 卽以八種 深重梵聲 告大眾言 汝等當知 假使有人 左肩擔父 右肩擔母 皮穿至骨 骨穴徹髓 遠須彌山 經百千劫 ⑩ 血流沒膝 由不能報 父母深恩</p> <p>假設有 曹飢饉劫 爲於父母 盡以其身 鬻割碎壞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p> <p>假使有人 爲於耶娘 手執利刀 割其眼睛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p> <p>假使有人 爲於耶娘 亦以利刀 剜其心肝 不辭痛苦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p> <p>假使有人 爲於耶娘 打骨出髓 百千牽戟 一時刺身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p> <p>假使有人 爲於耶娘 吞熱鐵丸 遍身焦爛 經百千劫 由不能報 父母深恩</p> <p>尔時大眾 聞世尊語 痛割於心 諦思無計 ⑪ 問同發聲言 深心慙愧 我等今者 ⑫ 云何報德 父母深恩 爲於父母 懺悔罪愆 爲於父母 讀誦此經 爲於父母 布施修福 若能如此 名曰孝子 不作此行 是地獄人</p> <p>佛告阿難 不孝之身 ⑬ 命終墮阿鼻地獄 其獄縱廣 八萬由旬 鐵爲羅網 其地赤鐵 熾火炯然 猛烈炎鑪 雷奔電爍 燒銅鐵汁 流注罪人 銅狗鐵蛇 恒吐烟焰 熨燒煮炙 脂膏焦然 苦哉哀哉 難堪難忍 鈎戟槍梢 ⑭ 劔刀刀輪 如雨如雲 空中亂下 或斫或刺 苦罰罪人 歷劫受殃 無時間歇 又令更入 餘地獄中 遍歷受苦 其數十八</p> <p>一者飲銅地獄 二者黑繩地獄 三者炎石地獄 四者沸尿地獄 五者火車地獄 六者鐵床地獄 七者銅柱地獄 八者鐵錘地獄 九者鐵網地獄 十者鐵窟地獄 十一者鐵丸地獄 十二者劍輪地獄 十三者拔舌地獄 十四者灰河地獄 十五者鍊湯地獄 十六者熱鐵地獄 十七者黑闇地獄 十八者寒冰地獄 遍諸地獄 受大苦痛 腹肚骨肉 攪亂縱橫 一日之中 千生万死 皆由五逆 不孝之愆</p>
流通分	<p>⑮ 尔時阿難 及諸 天龍鬼神 夜叉羅刹 人非人等 聞佛所說 身毛皆豎 ⑯ 悲泣哽咽 不能自裁 皆發願言 我等從今 盡未來際 寧碎此身 由如微塵 誓不違於如來聖教 寧以剝確 斬斫其身 百千万段 皮肉筋骨 悉皆零落 終不違於如來聖教 阿難 從座安詳而起 白世尊言 此經當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名父母恩重 汝當奉持</p> <p>尔時大眾 聞佛說法 皆大歡喜 信受奉行</p>

4. 系統別 代表 寫本의 校釋

4.1 甲本 校釋(北8202 對 上博48)

현재 돈황사본 중에는 <은중경>이 63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종 계통의 사본은 모두 10여부 정도이다. 그 중 앞장에서는 갑종 계통의 대표적 사본 2종의 경문을 판독하여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앞장에 수록한 대표 사본 2종의 경문의 내용을 상호 校勘하고, 한편 여타의 사본을 참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갑종 계통의 대표 사본으로 선정한 중국 국가도서관의 北8202와 상해박물관의 48호를 대비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敦煌寫本 <父母恩重經> 甲種 系統 代表寫本의 校勘內容

區分	順次	北8202	上博48	校釋
序分	1	優婆塞優婆夷	優婆塞優□夷	優婆塞優婆夷
正宗分	2	人生在世	人生生在世	人生在世
	3	□乾就濕	推乾就濕	推乾就濕
	4	又必五摘 孝子橋不	又 - -	又必五摘 孝子不橋
	5	□得好衣	欲得好衣	欲得好衣
	6	覆蓋身體	覆蓋身□	覆蓋身體
	7	共相語樂	共相語樂	共相語樂
	8	難遭之甚	難遭之其	難遭之甚

위의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갑종 계통의 대표 사본 2종의 대비 결과, 모두 8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 중 문자의 出入 현상은 6곳(1-6)에서 나타났으며, 2곳(6,7)에서 誤字가 발견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교감부분은 ‘又必五摘 孝子不橋’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사례이며, 오자의 경우는 ‘語’를 ‘諸’로, 또 ‘甚’을 ‘其’로 잘못 쓴 것으로 자형이 흡사하여 발생된 錯寫 현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앞에 수록한 경문 중에 강조한 ‘寡, 低, 以’ 字 등은 사본에는 異體字로 되어있어 판독에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데, 모두 당시에 통용되었던 草書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처럼 교감 결과가 문자의 출입과 유사 자형의 착오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 이 2종의 사본은 필사자의 전사과정에서 발생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중국의 馬世長과 孫修身에 의해 北8202(14호) 사본을 교감하여 그 전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¹⁷⁾ 필자가 제시한 8곳 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손수신이 해당 사본과 마세장의 교감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한 전문을 근거로 재차 교감을 실시한 결과를 <표 11>로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표 11> 敦煌寫本 <父母恩重經>(北8202)의 孫修身 校勘 內容

區分	順次	孫修身	北8202	校釋
序分	1	諸大弟子 一切諸天	一切諸天	一切諸天
	2	瞻仰尊顏 且不暫舍	瞻仰尊顏 因不暫舍	瞻仰尊顏 因不暫舍
正宗分	3	推干就濕	□乾就濕	擁乾就濕
	4	計論母恩	論母之恩	論母之恩
	5	昊天罔報	昊天罔極	昊天罔極
	6	嗚呼向母	嗚呼慈母	嗚呼慈母
	7	獸思念之	善思念之	善思念之
	8	昊天罔報	昊天罔極	昊天罔極
	9	能造佛槃	能造佛槃	能造佛槃
	11	嗚呼問母 母爲其子	嗚呼向母 母爲橋子	嗚呼向母 母爲其子
	12	孝子不橋	孝子橋不	孝子不橋
	13	橫簪上頭	橫簪上頭	橫簪上頭
	14	年老衰老	年老色衰	年老色衰
	15	長吁歎息	長吟歎息	長吟歎息
	16	爭疾取使	急疾取使	急疾取使
	17	十喚九違	十呼九違	十呼九違
	18	罵詈瞋怒	罵詈瞋患	罵詈瞋患
	19	悲泪懊惱	悲哭懊惱	悲哭懊惱
	20	天不感應 - 人之孝順	天不感應 閃子更生 父母開目 人之孝順	天不感應 閃子更生 父母開目 人之孝順

16) 이러한 전거는李志賢 등이 편찬한 「中國草書大字典」(上海:上海書畫出版社, 1994)에서 용례가 보이고 있다. 예컨대 ‘寡’자의 경우 隋나라 智永이 쓴 <千字文>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당나라 孫過庭의 <書譜>와 송나라 趙構의 <真草千字文>에도 잘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이에 쓰여진 敦煌寫本の筆寫에도 영향을 미쳐通俗字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黃征 編, 「敦煌俗字典」(上海:上海教育出版社, 2005) 參考].

17) 孫修身, 「佛說報父母恩重經」板本研究, 「段文傑敦煌研究十年紀念文集」(北京 世界圖書, 1996), 240-241.

流通分	21	爾時阿難 從座而起	阿難 從座而起	阿難 從座而起
	22	爾時 佛告阿難	佛告阿難	佛告阿難
	23	此經名命	此經名	此經名
	24	作福造經 或復仰延衆 僧 燒香請佛	作福造經 - - 燒香請佛	作福造經 - - 燒香請佛
	25	當知是人	當依是人	當依是人
	26	佛說經已 帝釋梵王	帝釋梵王	帝釋梵王

위의 <표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손수신은 모두 26곳의 교감결과를 제시하였다. 손수신의 교감 내용을 살펴보면, 한 두 곳에서 수용할 만한 교감결과가 있으나, 오히려 대부분의 교감 내용이 해당 사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손수신이 그의 논문에 제시한 이하의 여러 교감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4.2 乙本 校釋(S2084 對 P2285)

을중 계통의 사본은 현재 36부에 이르는 가장 많은 부수가 남아 있어, 당시 일반에 널리 통용되었던 通行本으로 보인다. 이 사본은 갑종에 들어있는 중국인의 <효자고사> 내용을 刪削한 것으로, 사실 이 고사 부분만을 빼놓으면 갑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교감에는 甲乙 계통의 사본이 상호 참고가 될 수 있다.

을중 사본의 교감 대상본으로는 이미 <大正新修大藏經>에 그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스타인본(S2084)과 사경기가 들어 있고 가장 정형적인 唐代 사본인 펠리오본(P2285)을 선정하여, 그 전문은 앞장에 수록해 두었다. 여기에서는 앞장에 수록된 경문을 토대로 상호 교감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敦煌寫本 <父母恩重經> 乙種 系統 代表寫本の 校勘內容

區分	順次	S 2084	P 2285	校釋
序分	1	因不暫捨	目不暫捨	因不暫捨
正宗分	2	和和弄聲	和和浬聲	和和弄聲
	3	慈母云何 可報	慈母云何 可報其恩	慈母云何 可報其恩
	4	昊天罔極 云何	昊天罔極 云何可報	昊天罔極 云何可報
	5	莫復	莫復過	莫復過是 ¹
	6	向其與子	歸向與子	歸向其子 ²
	7	必有五箇 孝子不懷	又必五箇 孝子不橋	又必五箇 孝子不橋
	8	親好綿帛	新好綿帛	新好綿帛
	9	長呼歎息	長吁歎息	長呼歎息
	10	非五不長 但五生汝	非吾不長 但吾生汝	非吾不長 但吾生汝

1, 2는 갑종 사본 北8202 및 上博48 參考 校勘

위의 <표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교감부분은 모두 11곳에서 나타났다. 이 중 문자의 增入 현상은 4곳에서 보이고, 그밖에 7곳은 전사과정에서 발생한 錯寫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증입된 곳은 주로 P2285 사본에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정제된 사본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곳에서는 앞의 갑종사본을 근거로 교감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서본의 ‘因’자는 교사본의 경우 因자의 古字로 쓰여져 있는데, 그 字形이 ‘目’와 비슷하여 馬世長을 비롯하여 대부분 교감자가 이를 감지하지 못한 듯 目자로 기재하고 있다.

4.3 丁本 校釋(P3919a 對 上圖119)

정종 계통의 사본은 갑·을종 계통의 사본에 비해 경문의 내용이 상당부분 증광되어 있다. 이처럼 증광된 부분은 부모의 자식에 베푸는 구체적 은혜를 기술한 10항목의 내용이며, 또한 이러한 부모의 은혜에 보답치 못하고 불효하게 되면 큰 죄악을 받게 된다는 18종의 죄목이 열거된 내용이다.

이 정종 계통의 사본은 현재 단지 2부만 현존하고 있는데, 사본의 권말에 수록된 사경기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돈황에 소재하고 있었던 三界寺의 스님 戒輪

한 사람에 의해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사본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본은 펠리오수집본에 들어 있는 P.3919a본과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19본이다. 비록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사경되었으나, 형태적 특징은 매우 다르다. 上圖119본은 당대사본의 형식을 준거한 매우 정형적인 권자 사본으로 보이나, P.3919a본은 오대말기에 유행했던 책자 형태의 사본으로 行字가 매우 조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종 계통의 사본 2부는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사본이나, 그 외형적 특징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경문의 변화 현상을 살피기 위해 앞장에 제시한 전문을 토대로 상호 교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감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敦煌寫本 <父母恩重經> 丁種 系統 代表寫本の 校勘內容

區分	順次	P 3919	上圖 119	校釋
正宗分	1	三年諸中	三年之中	三年之中
	2	父慈母方差	慈母方老	慈母方老
	3	狂被刑科	枉被刑科	枉被刑科
	4	勸愛長乖	歡愛長乖	歡愛長乖
	5	動心寒溫	動止寒溫	動止寒溫
	6	形息衰羸	刑兒衰羸	形兒衰羸
	7	深眷屬重	深眷□重	深眷屬重
	8	或隨夫婿	或隨婿夫	或隨婿夫
	9	冥若夜遊	寘若夜遊	寘若夜遊
	10	流血沒膝	血流沒膝	血流沒膝
	11	同發聲言	間同發聲言	同發聲言
	12	云何報得	云何報德	云何報德
	13	命終墮於阿鼻地獄	命終墮□阿鼻地獄	命終墮於阿鼻地獄
	14	劍刀風輪	劍刀刀輪	劍刀風輪
流通分	15	尔時阿難 及諸大眾	尔時阿難 及諸□□	尔時阿難 及諸大眾
	16	悲泣哽噎	悲泣哽咽	悲泣哽咽

위의 <표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丁本 사본은 모두 16곳에서 교감 결과가 나타났다. 교감 현상을 보면, 문자의 增入은 4곳에서 보이며, 또한 문자가 倒錯된 경우는 2곳에서 나타나 있다. 그밖에 경우는 전사과정에서 착오로 발생된 錯寫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처럼 동일한 사람에 의해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착오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근본적으로는 저본의 선정에 그 문제가 있었으나, 전사과정에서 나타난 착오나 모호함에서도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병종 계통의 사본을 제외한 갑·을·정종 계통의 대표 사본 2부를 선정하여 이들 상호간의 교감을 실시하였다. 교감 결과, 대부분 사본의 전사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부차적으로는 轉寫를 위한 저본 사본의 선정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結 論

이상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돈황 장경동에서 지난 1900년에 왕원록에 의해서 발견된 돈황사본 중 <父母恩重經>을 대상으로 주요 계통에 따라 대표 사본 6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그 전문을 판독 교감을 실시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들이 밝혀졌다.

1) 현존 돈황사본 중에 <부모은중경>은 모두 63부가 실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영국에 22부, 중국에 18부, 러시아에 12부, 프랑스에 3부, 일본과 대만에 각 1부가 수장되어 있으며, 그리고 소재가 미상인 사본이 5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그리하여 <은중경>사본 63부를 대상으로 계통별로 구분한 결과, 갑종계통이 11부, 을종계통이 36부, 병종계통이 3부, 정종계통이 2부로 분류되었으며, 기타 11부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殘片本으로 계통분류가 불가능하였다.

3) 현존하는 <은중경> 사본 중에 전권이 온전하여 경문의 내용을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최선본을 각 계통별로 2종씩 선정한 바, 갑종은 북경도서관의 북8202본과

상해박물관의 상박48본, 을중은 스타인 S.2084본과 펠리오 P.2285본, 정중은 펠리오 P.3919a본과 상해도서관의 상도119본이 선별되었다. 다만 병중은 변문본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선정된 6종의 계통별 대표 사본을 대상으로 전문을 판독하여, 이를 서분, 정중분, 유통분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5) 그리고 본문에 전재한 이들 6종의 계통별 대표사본을 대상으로 교감을 실시한 결과, 갑중은 8곳, 을중은 10곳, 정중은 16곳에서 상이점이 발견되었다.

6) 이처럼 해당 사본의 여러 곳에서 교감 대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轉寫 과정에서 발생된 錯寫 또는 倒錯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일부에서 문자의 出入 현상이 보이고 있다.

7)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돈황사본 <은중경>의 성립단계는 갑중 → 을중 → 정중의 순서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이 필자가 돈황사본 「은중경」을 대상으로 주요 계통별 고찰한 내용이다. 그러나 필자보다 선행하여 중국의 馬世長과 孫修身, 그리고 일본의 新井慧譽 등이 일부 사본에 대해서 교감을 실시한 바 있으나, 손수신의 교감은 계통별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거가 매우 불확실하다. 또한 新井慧譽는 특정 계통의 모든 사본을 대상으로 교감을 실시하였으나, 지나치게 세분하여 오히려 정곡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차후에 房山石經本, 목판본인 西夏의 報本'과 고려의 '大報本', 그리고 돈황사본 變文本과의 對校를 통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간행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성립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부록 1> 國家別 敦煌寫本 <父母恩重經>의 現狀

國家(收藏處)	入手番號	狀態	形態	經題	行字數	寫記	系統	備考
영국 (大英圖書館)	S.149	首失尾完	卷子	未詳	17±		甲	單卷
	S.865a	殘片	卷子	未詳	17±		丙-乙	合集
	S.1189	首尾完	卷子	佛說	17-		乙	單卷
	S.1323	首尾完	卷子	佛說	17±		乙	單卷
	S.1548a							合集
	S.1907	首尾完	卷子	佛說	17	開運3(946)年	乙	合集
	S.2084b	首尾完	卷子	佛說	17±		乙	合集
	S.2269						甲	
	S.3228							合集
	S.4476	首失尾完	卷子	佛說	17±	乾符2(875)年	乙	單卷
	S.4724	殘片	卷子	未詳	17±		丙-乙	單卷
	S.5215v							
	S.5253							
	S.5408							
	S.5433b	首完尾難	冊子	佛說	6/7		乙	合集
	S.5642b							合集
	S.6007	殘片	卷子	佛說	17±(?)		丙-乙	單卷
	S.6062							
	S.6074	殘片	卷子	未詳	12+		甲(?)	未詳
	S.6087						甲	
S.7203	殘片	卷子	未詳	17-		甲		
S.7635								
S.7779								

國家	收藏處	入手番號	狀態	形態	經題	行字數	寫記	系統	備考	
中國	國家圖書館	北 8202(號14)	首尾完	卷子	佛說	17+	保勝	甲	單卷	
		北 8203(辰36)	首完尾亂	卷子	佛說	17±		乙	合集	
		北 8204(人22)	首失尾完	卷子	佛說	17±		甲	單卷	
		北 8205(闕40)	首失尾完	卷子	佛說	17±		乙	單卷	
		北 8206(裳33)	首失尾完	卷子	未詳	17±		乙	單卷	
		北 8207(翬25)	首失尾完	卷子	未詳	17±		乙	單卷	
		北 8208(泰28)	首失尾完	卷子	佛說	17-		乙	單卷	
		北 8209(洪39)	首失尾完	卷子	未詳	17±		乙	單卷	
		北 8210(李85)	首失尾完	卷子	未詳	15		乙	單卷	
		北 8211(霜81)	首尾完 中失	卷子	佛說	17±		乙	合集	
		北新 1007								
		北新 1220								
		北新 1410								
	北京大圖書館	D.100								
		D.101								
	上海博物館	上博 48(41379)	首尾完	冊子	佛說	6/26	同光2[924]年	甲	合集	
		上博 56(44961)	首失尾完	卷子	佛說	17±	中和2(882)年	乙	單卷	
		上博 48(41379)	首尾完	冊子	佛說	6/26	同光2[924]年	甲	合集	
		上博 56(44961)	首失尾完	卷子	佛說	17±	中和2(882)年	乙	單卷	
	上海圖書館	上圖119(812569)	首尾完	卷子	佛說	17±	顯德6(959)年	丁	單卷	

敦煌寫本「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國家(收藏處)	入手番號	狀態	形態	經題	行字數	寫記	系統	備考
프랑스 (國立圖書館)	P.2285	首尾完	卷子	佛說	17-	丁卯[847]年	乙	單卷
	P.3919a	首尾完	冊子	佛說	5/36	戒輪書	丁	合集
	P.3919b	首完尾失	冊子	佛說	5/36	顯德6(959)年	乙	合集
	EO.3566		冊子			天福3(938)年	乙	合集
러시아 (東方學研究所)	Дx.44							
	Дx.304							
	Дx.619							
	Дx.927							
	Дx.975							
	Дx.1140							
	Дx.1595	首失尾完	卷子	佛說	17±		乙	單卷
	Дx.1689							
	Дx.1982							
	Дx.1989							
	Дx.3075							
Дx.3084								

國家	收藏處	入手番號	狀態	形態	經題	行字數	寫記	系統	備考
대북	中央圖書館	31		卷子					
일본	書道博物館	中村本		卷子					
기타	李盛鐸 鑑藏敦煌 寫本目錄	散 319		卷子					
		散 396		卷子					
		散 483		卷子					
		散 548 (臺灣08698)	首失尾完	卷子	佛說	17±		甲	單卷
		散 614		卷子					

<참고문헌>

- 禿氏祐祥. “父母恩重經の異本に就て.” 『宗教研究』第5卷 第4號(1928).
- 馬世長. “<父母恩重經>寫本與變相.” 『1997年敦煌石窟研究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石窟考古篇』, 遼寧美術出版社, 1990.
- 馬世長. “<父母恩重經>寫本與變相.” 『敦煌研究文集：敦煌石窟經變篇』, 甘肅民族出版社, 2000.
- 박도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의 圖像 형성 과정.” 『美術史學報』23輯(2004).
- 小川貫一. “<大報父母恩重經の變文と變相>研究.” 『印度學佛教學研究』第13卷 第1號(1965).
- 孫修身. “『佛說報父母恩重經』板本研究.” 『段文傑敦煌研究十年紀念文集』北京：世界圖書, 1996.
- 孫修身. “山東成武白浮圖村<父母恩重經>碑校記.” 『敦煌研究』1997年 第2期(1997).
- 松本榮一. 『敦煌畫の研究』, 東京：同朋社, 1985.
- 宋日基(外). “初編本『三綱行實孝子圖』의 編纂過程 및 板畫樣式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第25輯(2003. 6).
- 宋日基. “韓國本 <父母恩重經> 形成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2006. 3).
- 新井慧譽. “『大報父母恩重經』の先在經典『伊藤卷上』.” 『印度學佛教學研究』第42卷 第2號(1993).
-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丁蘭本について.” 『佛教學』第37號(1995).
-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丁蘭本 校異.” 『二松學舍大學論集』第39集(1996).
-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古本 校異.” 『二松學舍大學論集』第40集(1997).
- 新井慧譽. “敦煌本<父母恩重經> 校異.” 『二松學舍大學論集』第31集(1988).
- 新井慧譽. “<父母恩重經>の報本の特徴.” 『二松學舍大學論集』第44集(2001).
- 新井慧譽. “房山石經の<父母恩重經>.” 『印度學佛教學研究』第51卷 第 號(2002).

- 劉長久. “安岳石窟藝術概論.” 「安岳石窟藝術」.
- 劉進寶. “中國敦煌學研究的特點.” 「人文科學」第84輯(2002), 139-159.
- 林元白. “唐代房山石經刻造概況.” 「現代佛教」1958年 第3期(1958).
- 張湧泉. “敦煌本〈佛說父母恩重經〉研究.” 「文史」第49期(1994).
- 鄭阿財. “敦煌寫本〈父母恩重經〉研究.” 「中興法商學報」第18期(1983).
- 鄭阿財. “〈父母恩重經〉傳佈的歷史考察.” 「新世紀敦煌學論文集」(巴蜀書社, 2003).
- 鄭阿財. 「敦煌文獻與文學」. 1993.
- 中川善教. 「讚父母恩重經」. 1944.
- 秦明智. “北宋〈報父母恩重經變畫〉.” 「文物」1982.
- 落合俊典. 「中國・日本撰述經典:七寺古逸經典研究叢書」第5冊, 東京: 大東出版社, 2000.
- 塚本善隆. “石經山雲居寺と石刻大藏經.” 「東方學報」第5冊(富刊).
- 秋月觀暎. “道教と佛教の父母恩重經: 兩經の成立をめぐる諸問題.” 「宗教研究」187號(1996).
- 胡文和. “安岳臥佛溝唐代石經.” 「四川文物」1986年 第2期(1986).
- 胡文和. “大足寶頂〈父母恩重經變相〉研究.” 「敦煌研究」1992年 第2期(1992).
- 胡文和. 「四川道教佛教石窟藝術」
- 黃炳章. 「房山雲居寺石經探勘小史」.

КСІ